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24 (화요일)

[오늘의 한 줄]

코스피가 6.32% 반등해 5,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등도 매수에 합류했습니다. 젠슨 황의 엔비디아 복귀는 공식 확인됐지만 조사 종료는 아닙니다. 주가 반등으로 AI 위험의 사모대출 조건은 해제됐습니다. 하루의 회복과 구조적 위험 해소는 구분해 기록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24 정규장 마감)

- 코스피 5,006.03 (+297.49, +6.32%). 4,880.16으로 출발해 장중 5,065.74까지 올랐습니다. 11/19 종가 5,137.89와 비교하면 아직 2.57% 낮습니다. [계산]
- 코스닥 665.88 (+30.43, +4.79%). 두 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6분경, 코스닥은 9시 28분경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연합뉴스).
- VKOSPI 58.45 (+2.62, +4.69%, Hongzi 집계). 주가는 올랐지만 옵션에 반영된 예상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변동성지수 상승을 주가 하락 확률로 읽지는 않습니다.
- 삼성전자 189,400원 (+6.70%), SK하이닉스 1,158,000원 (+6.73%), 삼성전기 858,000원 (+10.28%).
-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 400,000원 (+5.96%), 효성중공업 1,763,000원 (+7.57%), LS일렉트릭 122,000원 (+10.71%).
-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1,342.4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5원 내렸습니다. 원화 강세입니다. 야간 은행 고시환율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 네이버·야후 시세, Hongzi
출처 원문: www.yna.co.kr
출처 원문: m.stock.naver.com
출처 원문: m.stock.naver.com
출처 원문: fear.hongzi.us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오후 3시 35분, KRX·연합인포맥스)

- 코스피: 외국인 +7,391.6억원, 기관 +8,692.4억원, 기타법인 +4,483.1억원. 개인은 -20,430.2억원입니다. 외국인은 마감 기사 기준 8거래일 만에 순매수했습니다.
- 기관 내부에서도 연기금등 +3,024.3억원, 금융투자 +2,511.6억원, 투신 +2,205.8억원, 사모 +1,135.5억원으로 매수가 넓어졌습니다. 은행 -30.3억원, 보험 -1.4억원, 기타금융 -153.0억원은 순매도입니다.
- 코스닥: 외국인 +1,186.2억원, 기관 +2,064.1억원, 개인 -3,077.1억원, 기타법인 -163.2억원입니다.
- 연합 종합 기사의 코스피 기관 +8,682억원과 표의 +8,692.4억원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투자자별 표의 15:35 값을 통일해 사용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합산이나 더 늦은 네이버 집계와 섞지 않았습니다.
- 반도체 안에서도 수급은 달랐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4,224억원, SK하이닉스 -1,351억원입니다. 두 회사 주가의 동반 상승이 두 회사에 대한 외국인 동반 매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기타법인 전체 순매수액을 자사주 매입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사주 주문 한도 완화와 개별 기업의 실제 매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뉴시스
출처 원문: www.yna.co.kr
출처 원문: www.newsis.com

■ 미국 시장 (11/23 월요일 정규장 마감)

- 나스닥 24,089.56 (+6.51%), S&P500 7,237.17 (+4.73%), 다우 49,595.31 (+3.01%), 러셀2000 2,669.66 (+3.4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588.05 (+14.03%).
- 엔비디아 165.05달러 (+31.48%), 마이크론 707.70달러 (+19.04%). 팔란티어(PLTR) 159.36달러 (+11.06%), 아이온큐(IONQ) 23.34달러 (+12.64%), 아마존(AMZN) 255.39달러 (+3.47%)입니다.
- 위 수치는 미국 현지 11/23 확정장입니다. 한국시간 11/24 저녁의 선물과는 거래 시점이 다릅니다. 지수 종가는 MarketWatch 마감 기사와 야후 일별 시세를 대조했습니다.
출처: MarketWatch 마감 기사, 야후 일별 시세
출처 원문: www.marketwatch.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 경영 복귀와 조사 지속은 동시에 확인됩니다

- 엔비디아는 11/23 공식 발표에서 젠슨 황의 사장·CEO·이사 복귀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Harvey Jones는 의장을 유지합니다. Colette Kress도 CFO 업무를 계속합니다.
- 같은 발표는 독립이사 위원회 조사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는 진행 중인 정부 조사와 질의에도 계속 협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수출통제 위원회와 최고준법책임자 채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 따라서 복귀를 SEC 회계 조사 종결, 위반 없음 확정, 자금지원 정책의 전면 원복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복귀 발표에는 그런 결론이 없습니다. 11/20 SEC 회계 조사 관련 내용은 로이터의 관계자 인용 보도이며 위반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엔비디아 공식 발표, MarketWatch 독립 보도
출처 원문: nvidianews.nvidia.com
출처 원문: www.marketwatch.com

■ 채권·선물·원자재

- 미 국채 (11/23 재무부 확정): 10년물 4.92%, 2년물 4.63%, 3개월물 4.37%, 30년물 5.29%. 10년-2년 금리차는 +0.29%p입니다. [계산]
- 한국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은 3년 3.640% (+1.7bp), 10년 3.819% (-0.8bp). 이 수치의 전일 3년물은 3.623%입니다. 전날 보고의 네이버 집계 3.626%와 출처·집계 기준이 달라 오늘은 연합의 동일 기준 전일비를 사용했습니다.
- 나스닥100 선물(NQ=F) 26,448.25 (-1.34%, 직전 기준값 26,808.00 대비 계산). WTI 80.32달러, 브렌트 87.06달러, 금 선물 3,634.1달러. 모두 11/24 한국시간 20:58~20:59 야후 지연 시세로, 진행 중인 선물 가격입니다.
- EIA 원문 표는 확인 시점에도 11/17 공개, 11/16 측정 자료였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갤런당 3.805달러, 도로용 경유 5.937달러입니다. 다음 공개 예정일은 미국 현지 11/24로 표시돼 있습니다. 새 자료가 이미

공개됐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미 재무부, 연합뉴스 채권 마감, 야후, EIA
출처 원문: home.treasury.gov
출처 원문: www.yna.co.kr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www.eia.gov

[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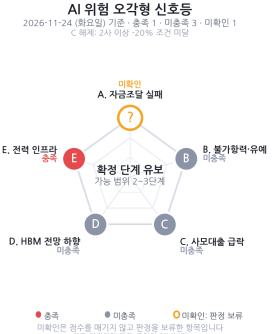
오늘 검증일이 된 과거 판단 두 건을 당시 문구와 대조했습니다.
- 11/17 판단: 코스피 종가가 4,968.48 아래일 것. T+5(11/24) 실제 종가 5,006.03으로 빗나갔습니다.
- 11/23 판단: 코스피 종가가 4,708.54 아래일 것. T+1(11/24) 실제 종가 5,006.03으로 빗나갔습니다.
- 누계 45건 중 27건 적중, 18건 빗나감입니다. 같은 시장 흐름을 겹쳐 관측하므로 독립적인 45번의 시험이 아닙니다. 단순 방향 판단 기록이며 투자 성과나 예측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판단]

- 어제 제시했던 판단 변경 조건 중 외국인 순매도 중단, 금융투자 이외 기관의 매수 확대, 미국 반도체주 하락 진정이 오늘 관찰됐습니다. 기존 하방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단기 반등 지속 쪽으로 바꿉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하루입니다.
- 코스피가 올라도 VKOSPI가 함께 상승했고, 미국 선물은 저녁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등의 지속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오늘 상승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조사와 신용위험도 별개로 남습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006.03 위일 것. T+1은 11/25(수), T+5는 12/1(화) 종가로 각각 검증합니다. 아래일 것에서 위일 것으로 방향을 바꿨음을 명시합니다.
- 다시 판단을 바꾸는 조건: 외국인과 주요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되돌아가는 경우, 또는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이 재차 꺾이는 경우입니다. SEC·회사 조사에서 확인되는 후속 사실은 따로 반영합니다. 개인별 매수 시점이나 비중을 제시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AI 위험 v1]

정해 둔 다섯 조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주가 조건의 해제와 금융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 A. AI 기업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네비우스 채권 철회의 결정일을 확정하지 못했고, 확인된 별도 2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달 지연·대출시장 위축을 실패·철회 건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 통보 또는 지급 유예, 최근 30일: 미충족. 9/24 오라클 Project Jupiter 통보는 기존에 반영했던 사건이며 10/24에 30일 관찰기간이 끝났습니다. 최근 대출매각 보도로 통보일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통보와 실제 연체·사업 철수는 다르며, 당시 오라클의 계획 일정 유지와 블루아울의 금융 약정 유지 입장도 함께 보존합니다.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최근 30일 신규 충족 사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 중 2사 이상이 최근 6개월 종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미충족으로 전환. 11/23 종가 기준 아폴로 -18.55%, KKR -19.67%, 블랙스톤 -22.41%입니다. 블랙스톤 1사만 기준선 아래여서 직전의 3사 충족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주가 임계값 해제이지 대출 부실 해소 확인은 아닙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다음 분기 총매출 가이던스의 이전 발표 대비 10% 이상 하향, 또는 삼성·SK의 HBM 생산·매출 가이던스 명시적 하향: 미충족 유지. 오늘 확인한 자료에서 해당 공식 하향 발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사 추정, 주가 급등락, CEO 복귀는 이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E. GE버노바와 한국 전력기기 3사 중 2종 이상이 최근 6개월 종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 충족. GE버노바 -35.59% (11/23), HD현대일렉트릭 -66.50%, 효성중공업 -54.70%, LS일렉트릭 -57.19% (한국 3종 11/24)입니다. 네 종목 모두 기준에 해당합니다. [계산]
- 종합: E 1개 충족, B·C·D 미충족, A 미확인입니다. 확인된 항목만으로는 2단계에 해당하나 A가 미확인이어서 확정 단계는 유보하며 가능 범위는 2~3단계입니다. 직전 3~4단계에서 낮아진 이유는 C 주가 조건 해제입니다.
- 주가 계산은 야후 최근 6개월 일별 종가의 최대값 대비 최신 확정 종가입니다. 창이 매일 이동하므로 오래된 고점이 빠지면 낙폭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C의 고점은 세 회사 모두 8/13로 직전과 같아, 이번 해제는 종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야후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삼성·SK 공식 실적 발표, 기존 불가항력 보도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news.skhynix.com
출처 원문: news.samsung.com
출처 원문: www.cnbc.com
임계값과 단계는 미리 정한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 모형이 아닙니다. 확인 범위 안의 자료를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